













특히 이스라엘의 수출량은 2001년에 비해 무려 24%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요르단의 아랍칼륨회사는 민영화되었으며, 사스카치완칼륨회사는 아랍칼륨회사의 26%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카날석 처리 공장(carnelite beneficiation plant)의 생산 장애들이 해결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생산이 30만톤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스와 석유로부터 재생된 기초적 유황(Sulfur)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지에서 생산되는데, 이것 역시 세계 교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산이 완만하게 증대되었으며, 가스와 석유 산업들이 팽창한 결과로 2005년에는 생산량이 78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에서의 거대한 합산 육상 가스 발전 프로젝트의 덕택으로 아부다비에서 생산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란에서는 아탈루에 발전 프로젝트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위야 가스 처리 공장의 덕택으로 생산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비료 원료의 수출지로서의 중동 지역의 역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

- 풍부한 천연자원들
-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적합한 지리적 위치
- 암모니아, 요소, 그리고 유황 생산능력의 증대
- 수출에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요소, 유황, 그리고 칼륨 등의 높은 질 등 입니다.

**o 소비자로서의 중동 지역**

비료 소비자로서의 중동 지역의 역할은 세계 소비량에 비교해 본다면 제한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한정된 농지와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총 비료 소비량은 600만톤 정도인데 이는 세계 소비량의 4.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한 비료 소비 국가는 터키, 이란, 이집트 등으로서, 이들은 각각 이 지역 비료 소비량의 35%, 22%,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소비량은 2001년에 비해서 대략 5%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동년 이 지역

